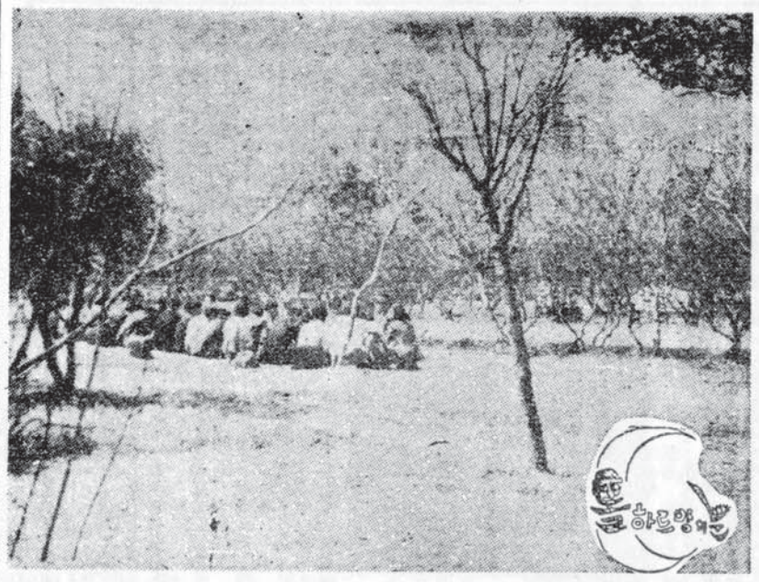
濟大新報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2洞581
電話 ⑨2125-7
우편번호 590

發行編輯兼印刷人 辺時敏
主幹 夫萬根
編輯長 呉起煥

印刷：濟州新聞社
濟州市一徒一洞1280
電話 ⑨3536



學士250名 새로 輩出

26일 第23回 卒業式거행

首席卒業에 宋경희孃

邊學長 使命感가진 人材되길 당부

本大學 제23회 卒業式및 學位授与式이 26일 大講堂에서 베풀어져 2백50명의 學士를 배출했다.

이날 卒業式에는 내외귀빈과 친지 그리고 교직원들이 다수 참석, 영예의 卒業証書를 받고 社會로 첫발을 내딛는 卒業生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辺時敏學長은 式辞를 통해 우리 社會는 젊은 情熱과 날카로운 知性을 가진 참신한 人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卒業生들은 이러한 절실한 要請에 副応할 수 있는 투철한 使命感을 갖고 國家와 民族을 위해 奉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辺學長은 卒業生들은 實性과 自律性을 堅持하고 「利己心 보다는 남을 위한 犧牲精神을, 實利追求보다는 理想實現을, 權利보다는 義務履行을, 虛偽와 偽善보다는 真理와 真實을 추구하는 때도를 生活化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卒業式에서 영예의 首席은 英語教育科를 나오는 宋경희양으로 평균 92점을 얻어 文敎部長官賞을 획득했고 科別首席卒業者인 呉승석(行政學科) 군등 15명이 學長賞을 받았다.

한편 咸璟燦군등 2명은 學長의 공로표창장을 받았다. 수상및 표창자는 다음과같다.

△學長賞(우등상)=呉승석(행정학과)조용석(경영학과)咸璟燦(국어교육과)朴은숙(과학교육과)高병기(체육교육과)李경미(미술교육과)金창진(과학교육과)李남진(농화학과)文정호(원예학과)李창림(축산학과)강승진(식품학과)朴길현(어로학과)

△學長賞(창)=咸경태(무역학과)金경수(중식학과)

△大韓敎聯會長賞=文대욱(수학교육과)

△水産·海洋系 敎育聯合會長賞=朴길현(어로학과)

△水協中央會長賞=정오화(식품공학과)

△反共聯盟理事長賞=金성량(체육교육과)

이자리에서 宋상훈(경영과)군은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朴길현(어로과)군은 군참모총장상, 金경수(중식과)군은 단장상, 그리고 천유출(어로과)군은 군기상을 받았다.

總理賞에 宋상훈君

海軍豫備士官임관식 열려

79년도 海軍豫備士官임관식이 21일하오 本大學 대강당에서 열려 이날 임관식에는 軍 관계관및 본대학 교직원 그리고 가족친지들이 다수 참석해 임관한 후보생들의 영예를 축하했다.

辺時敏學長은 격려사(玄平孝敎育大學院長대독)에서 「임관된 여러분은 海軍장교로서의 자성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이자리에서 宋상훈(경영과)군은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朴길현(어로과)군은 군기상을 받았다.

<해군예비사관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二部및 大學院 합격자발표

行政學科 일반전형은 8대1競爭

본대학 二部學科및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79학년도 입학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二部학격자는 行政學科 經營學科에 각각 40명씩 모두 80명인데 行政學科는 50%는 산업체근로자를, 나머지는 본교 교과내신성적만으로 전형선발을 했고 經營學科는 50%는 산업체근로자를, 나머지는 同一系 특별전형으로 했는데 부족한 2명은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20명을 뽑은 行政學科의 일반전형에는 1백68명이 지원해 8·1의 치열한 경쟁율 나타냈다.

4대1의 치열한 경쟁율 나타냈다.

한편 15일에 발표된 대학원학격자는 農學研究科7명 水産學研究科2명 理學研究科3명등 모두 12명이며 교육대학원은 碩士과정에 건공별로 4명씩 모두 16명을, 그리고 研究課程도 16명을 뽑았는데 총 60명이 응시했었다.

합격자 이름은 다음과같다.

◇行政學科=양택훈 김덕남 고성권 한승일 고용성 김상희 강성범 김익선 현춘식 이명도 고여호 김용학 송문희 오승언 박승봉 김 훈 홍성요 강성건 강창신 남상민 박원형 김종구 이정효 강영건 김인상순 김원종 김진현 김경수 임재형 정영택 김순종 부성준 장승환 고신근 김동용 부두관 김성진 안창수 이현보 김성진 안창수 이영욱 공향순 고성태 송상보 양도현 김인순 김동선 최영숙 최태식 김창련 김욱순 김창름 주창규 박봉수 김순영 김용천 장성천 김두원 손영진 이방영 양순응 김기조 현창봉 강덕재 허대선 변용관 양동기

◇교육대학원=강영봉 김창집 김승림 김영환 송경희 김형민 고창근 강명효(이상 英語敎育전공) 현익천 김병춘 김성찬 고애자(이상 國語敎育전공) 김철수 변학영 문찬 강정은 김소영(이상 敎育行政전공)·

◇敎育學科=김정수 김형수 김종수 김순경 권혁모 장덕지 최세현 김광호 양창범(이상 農學研究科) 박희종 변창익(이상 水産學研究科) 오태현 문경수 신현구(이상 理學研究科)

◇國語敎育=김승림 김영환 김형민 고창근 김명효 현익천 김병춘 김성찬 고애자(이상 英語敎育전공) 김철수 변학영 문찬 강정은 김소영(이상 敎育行政전공)·

◇敎育=김정수 김형수 김종수 김순경 권혁모 장덕지 최세현 김광호 양창범(이상 農學研究科) 박희종 변창익(이상 水産學研究科) 오태현 문경수 신현구(이상 理學研究科)

◇國語=김승림 김영환 김형민 고창근 김명효 현익천 김병춘 김성찬 고애자(이상 英語敎育전공) 김철수 변학영 문찬 강정은 김소영(이상 敎育行政전공)·

◇英=김정수 김형수 김종수 김순경 권혁모 장덕지 최세현 김광호 양창범(이상 農學研究科) 박희종 변창익(이상 水産學研究科) 오태현 문경수 신현구(이상 理學研究科)

◇敎育=김승림 김영환 김형민 고창근 김명효 현익천 김병춘 김성찬 고애자(이상 英語敎育전공) 김철수 변학영 문찬 강정은 김소영(이상 敎育行政전공)·

◇國語=김승림 김영환 김형민 고창근 김명효 현익천 김병춘 김성찬 고애자(이상 英語敎育전공) 김철수 변학영 문찬 강정은 김소영(이상 敎育行政전공)·

◇敎育

邊時敏學長 卒業式 式辭

오늘 이 자리에 內外貴賓 여러분을 모시고 本大學 第23回 卒業式및 學位授与式을 擧行하게 된 것을 本人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本人은 그간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참다운 學術練磨와 高邁한 人格養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盤雪의 功을 쌓아서 오늘 學士學位를 授与받게된 여러분의 榮譽에 同僚敎職員과 함께 뜨거운 祝賀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卒業生 여러분들이 오늘의 榮光을 얻기까지 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子弟분들의 學業을 獻身的으로 뒷바라지·헤주신 學父兄의 勞苦에 대해서도 깊은 感謝와 尊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피 여러분이 象牙塔에서 生活해온 지난 數年동안에 우리 祖國은 史上 類例없는 비약적인 發展과 繁榮을 이룩해 왔읍니다. 分斷國으로서 北傀의 끊임없는 再侵挑發로 因한 緊張과 부작다단한 政治的·經濟的 國際狀況 아래서도 民族中興이라는 歷史的 課業이 成功的으로 추진되어 이제는 經濟大國에 결수 있는 기틀이 굳건히 다져졌읍니다.

우리民族은 過去의 貧困의 歷史를 淸算하고 豊饒와 繁榮을 約束하는 福祉國家建設을 目標로 힘찬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時代的, 民族的 使命感을 가진 嶄新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要請에 副応할 수 있는 일꾼은 여러분과 같이 最高學府에서 심오한 學理와 精緻한 技術을 習得한 高邁한 人格의 젊은 人材들입니다. 그러므로 將次 國民의 指導者로서 새 歷史를 先導할 새 일꾼이 여러분 이 榮光은 여기에서 탄생되는 이 榮光은 여러분 個人과 家族만 이 民族의 榮光이 아니라, 이나라 이민족의 榮光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長學 敏時邊>

卒業生 여러분은 이러한 歷史的, 社會的 狀況에 冷徹하게 對処해 나가는 使命感을 가지어야 합니다. 物欲을 초월한 바탕위에 認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國際社會에 經濟大國으로 登場할 날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狹小한 地域性이나 偏狹性을 타파하여 넓리 國家的, 國際的인 視野에서 事理를 判斷하고 世界의 進運을 洞察하면서 行動하는 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先進國의 文化를 섭취할 때에도 恒常 賢明한 판단력으로 取捨選択하고 國情에 알맞도록 創造的으로 그를 消化하여 自家藥籠之物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不斷히 眞理를 探究하고 識見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社會人으로서의 期待와 所望에 지배해 주시고 훌륭한 名門大學을 보다 飛躍的으로 發展시킬 土臺를 여러분들은 이 남아있읍니다만, 本大學을 다하여 覺悟로 있읍니다. 오늘로서 여러분들은 母校를 떠나지만, 濟州大學의 한 家族으로서 恒常 母校의 成長發展에 關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卒業生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이 깃들기를 新願하면서 式辭에 가름합니다.

一九七九年二月二六日

社會는 情熱과 知性가진사람要求
誠實性과 自律性겸비한 人材돼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過去의 貧困의 歷史를 淸算하고 豊饒와 繁榮을 目標로 힘찬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時代的, 民族的 使命感을 가진 嶄新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要請에 副応할 수 있는 일꾼은 여러분과 같이 最高學府에서 심오한 學理와 精緻한 技術을 習得한 高邁한 人格의 젊은 人材들입니다. 그러므로 將次 國民의 指導者로서 새 歷史를 先導할 새 일꾼이 여러분 이 榮光은 여기에서 탄생되는 이 榮光은 여러분 個人과 家族만 이 民族의 榮光이 아니라, 이나라 이민족의 榮光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卒業生 여러분은 이러한 歷史的, 社會的 狀況에 冷徹하게 對処해 나가는 使命感을 가지어야 합니다. 物欲을 초월한 바탕위에 認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國際社會에 經濟大國으로 登場할 날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狹小한 地域性이나 偏狹性을 타파하여 넓리 國家的, 國際的인 視野에서 事理를 判斷하고 世界의 進運을 洞察하면서 行動하는 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先進國의 文化를 섭취할 때에도 恒常 賢明한 판단력으로 取捨選択하고 國情에 알맞도록 創造的으로 그를 消化하여 自家藥籠之物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不斷히 眞理를 探究하고 識見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社會人으로서의 期待와 所望에 지배해 주시고 훌륭한 名門大學을 보다 飛躍的으로 發展시킬 土臺를 여러분들은 이 남아있읍니다만, 本大學을 다하여 覺悟로 있읍니다. 오늘로서 여러분들은 母校를 떠나지만, 濟州大學의 한 家族으로서 恒常 母校의 成長發展에 關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卒業生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이 깃들기를 新願하면서 式辭에 가름합니다.

一九七九年二月二六日

尹東柱의 詩的意味網

學生論壇

尹東柱의 詩的出発은 現伝하는 그의 詩集에 의하면 1934년의 「삶과 죽음」과 「초 한 대」로 되어있다. 이 두 개의 作品은 詩를 구축하는 능력에 있어서 허술함과 미흡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思考의 깊이나 主題의 심각성에서 尹東柱·詩의 모든 意味網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作品에 관련하는 尹東柱詩의 出発点이자 回帰單位이며·나중에 써어진 그의 詩의 근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두 작품은 기독교적인 발상과 세계인식에 제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데, 「삶과 죽음」에서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現實世界를 모순된 곳으로 파악한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과 같다는 소피스티케이션에 갖하는 「삶=죽음의 序曲」이라는 기본적인 逆說의 等式이 그것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준다. 그가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러나 한 「삶=죽음의 序曲」이라는 모순된 역선의 명제 때문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이 그것을 「메」를 녹여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의 환희에 취하여 「노래 끝의 恐怖」를 생각치 않는데 있다. 그런데 「삶=죽음의 序曲」이라는 명제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명제의 본질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意識있는 人間으로서는 이 모순된 世界를 그대로 비판하거나 방치할 수는 전혀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尹東柱는 그가 아쉬워하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반대급부로, 그러한 삶의 모순된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죽음의 勝利者」인 偉人들에 대하여 찬양을 보낸다. 偉人들은 「하늘 북판에 일새기듯이」 삶 하늘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소낙비 그친 뒤같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다시 말하여, 삶의 순간순간에 암울하게 순응하여 스며드는 죽음의 한계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모순된 삶에 정직하게 대결하는 성실성이다.

그렇기에 尹東柱는 그가 아쉬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따르는 반대급부로, 그러한 삶의 모순된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죽음의 勝利者」인 偉人들에 대하여 찬양을 보낸다. 偉人들은 「하늘 북판에 일새기듯이」 삶 하늘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소낙비 그친 뒤같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다시 말하여, 삶의 순간순간에 암울하게 순응하여 스며드는 죽음의 한계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모순된 삶에 정직하게 대결하는 성실성이다.

「초 한 대」에서 그는 그러한 성실성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희생이라는 면에서 보고 있다. 기독교적 수난의 의미를 담은 이 詩는 「죽음의 勝利者 偉人들」을 초의 이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삶과 죽음」과 「초 한 대」는 詩를 짜는 方法에서도 비슷함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개의 詩의 관련은 「죽음의 勝利者 偉人들=偉大한 香내를 풍기는 祭物」의 동시하에서 아해 「초 한 대」에서 그는 그 자신을 「죽음의 勝利者」로 규정한다면 삶은 모순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모순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모순의 질곡을 넘어서려면 자기희생을 통한 내적 성실성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金勝立
<國敎科·4>

Ⅱ

그렇다면, 무엇이 尹東柱로 하여금 이 世界를 모순된 곳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를 당혹 던져 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적어도 불협화음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바꿔말하여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때문이다. 바로 결핍이나 소외란 말로 규정되는 것이다. 尹東柱가 당시의 상황에서 찾아낸 결핍이나 소외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고쳐 해볼 수 있다.

<울동주의 현실인식은 단순한 식민지의 빈곤에서 시작하고 金仁煥이 지적하고 있는대로 그는 무엇보다도 식민지의 궁핍상을 각각 한다. 식민지의 궁핍상이 얼마만큼 그에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일이라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일련의 작품들은 평화스러운 공간과 화해로운 세계를 유일하게 노래하고 있다. 「봄」 「병아리」 「참새」 「햇비」 「거짓부리」 「반딧불」 등의 동시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희상적 공간을 통한 유년적 화합과 적정한 의성어 내지는 의태어에 의하여 빚고 있다는 평화로운 세계를 구김살없는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 또는 사물과 인간의 親和, 세계와 自我간의 관계가 대립이나 갈등이 없이 화해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충만한 세계 그에 의하면 太初에 「사랑은 뱀과 함께/毒은 어린 꽃과 함께」 모든 것이 마련되어서(「太初의 아침」) 이 세계의 모순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계의 종말과 절대자의 재림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새벽이 오면/나팔소리 들려올게 외다」라고 진술한다. (「새벽이 올때까지」) 결과적으로 尹東柱는 숨막힌 상황과 억압적 조건에 의해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종래에 「곤절긴 저항의 식과 (전규태) 사랑」(전규태) 이라는 말로 잔양맑아온 「十字架」도 자세히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정직한 도전적 사고이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사랑은 뱀과 함께/毒은 어린 꽃과 함께」 모든 것이 마련되어서(「太初의 아침」) 이 세계의 모순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계의 종말과 절대자의 재림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새벽이 오면/나팔소리 들려올게 외다」라고 진술한다. (「새벽이 올때까지」) 결과적으로 尹東柱는 숨막힌 상황과 억압적 조건에 의해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종래에 「곤절긴 저항의 식과 (전규태) 사랑」(전규태) 이라는 말로 잔양맑아온 「十字架」도 자세히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정직한 도전적 사고이다.

Ⅲ

尹東柱는 당시의 빈곤이나 결핍 또는 소외가 식민지의 질곡과 억압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꿈은 깨어지고」라는 詩를 보면, 당시의 쓱밭/눈물과 ∧오오, 荒廢의 상황을 ∧오오, 荒廢의 쓱밭/눈물과 목메임이여/∨라고 전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일제의 억압 때문이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노래하는 종달이/도망쳐 날아나고∨ ∧지난날 봄타령하던/금잔디 밭 ∧이제 가꿨도다∨ ∧꿈은 깨어졌다∨. 「寒暖計」라는 詩에서는 식민지의 질곡에 대항하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니라서 ∧꿈은 깨어졌다∨ 「寒暖計」라는 詩에서는 식민지의 질곡에 대항하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니라서 ∧꿈은 깨어졌다∨.

世界속의 大學·大學生들 <5>

西獨 뮨헨大學

吳光雄 <敎養學部·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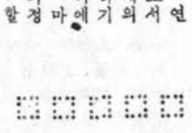
自國內와 外國의 大學因習과도 서로 협조하여 책이나 잡지는 물론 빌려주고 받고 한다. 세미나 도서관 안에 있어서 자기 전공 분야의 일반 도서는 거의 비치되어 있다. 세미나가 시작되면 담당 교수는 먼저 관계되는 참고서적들과 그 소재를 자세히 일러준다. 대부분의 세미나는 학생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수의 추천 서적을 읽어야만 다른 학생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처음엔 강의 내용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멍청히 앉아 있기가 일쑤였는데, 그것은 보통 힘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언어의 높은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제대로 학생들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기 까지 적지 않는 햇수를 채워야 한다. 노력 않으면 백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겠지만…

도서관 개관 시간은 학기 중엔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방학 중엔 밤 7시 까지다.

文科 계통의 교수 방법은 ①강연式 강의(Vorlesung) ②예비 세미나 (Proseminar) I, II ③本세미나 (Hauptseminar) ④상급 세미나 (Oberseminar) 등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세미나와 나란히 案內코-스가 있기도 하는 데, 이 코-스는 젊은 조교들이 맡는다. 명망 있는 교수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강연을 하는 것이 Vorlesung이다. 세미나에선 보통 20명 정도로 수강생의 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들 필로 교수로부터 연구 테마를 받아서 공동 연구 결과를 시간에 발표하면, 미숙한 부분에 대한 교수의 보충설명 그리고 어떤 爭点을 놓고서 토론을 벌인다. 上級으로 올라갈수록 그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고 세분된다. 보는 측면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문학 작품 해석도 그렇지만, 그 작품이 특히 정치적 성격을 띄울 때 의견을 달리하는 학생들 사이엔 상당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교수는 그것을 데스트한다.

대학의 정책진 커리큘럼은 없다. 의무적으로 부전공을 택하게 되어 있다. 文科의 경우 졸업 후의 進路에 따라 다른 졸업 시험이 있고 그것에 필요로하는 강과를 밟으면 끝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한 학기에 3개 세미나 이상의 수강은 무모한 짓이라고 교수들은 강조한다. 한 세미나의 한 시간 (보통 2시간 연속)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그 텍스 내용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학생이 박사과정에 들어 가고자 할 때, 자기가 택한 교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하여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일차적 난관이며 그 난관이 극복되면 이 때부터 기약 없는 학위까지의 기나긴 忍從의 시간이 열린다. 대학에서의 교수의 권위는 可히 衝天할 만하며, 첫 인상이나 편견에 좌우되는 일이 없진 않지만, 누구나 가 인정하는 연구 실적을 중히 여기며, 말과 생활 풍습이 다른 외국인 학생들의 不利한 여건을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學的 수준과를 엄연히 구별하여 自國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평가하는 관계로, 외국 학생들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不撤昼夜 학업에 매진한다.

세미나 관계로 자주 모이게 되어서 한 번은 대학 바로 뒷 거리의 한 학생집에 들렀다. 나무로 된 낡은 현관문을 밀치니 어두컴컴한 복도, 삐꺽이는 계단, 안내되어 들어간 방엔 장식이라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다. 색깔이 바랜 벽종이, 댕그렁 한 한쪽 벽에 밀어 부쳐진 침대, 고물 화되어 있음을 선독 상에서 방금 주어 갖다놓은 듯한 탁자, 위의 책꽂이란 대엔 서로 기대어 선 몇 권의 책들이, 아랫칸 눈빛에도 수호의 가 식도 허식도 없어 보였다. 외국의 것이라면 덮어 놓고 그 위로 엎어져서는 안된 것이로되, 나는 히려 한 그들 생활 주변을, 허례 허식을 모르고 근검·질박·절약이란 美德이 생활 躍天음식점에서는 예술가, 文人들과 대학생들이 판을 치고있다. 대학의 公式 축제일은 없고, 강한 카폴리틱의 영향아래 다 충추며 노래부른다. 학기가 끝날 때 쯤 되어서 대학 식당과 작 세미나 벽보판에 나붙는 쪽지들은 대개 여행동반자를 구하는 내용이다. 가까운 나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희랍쪽으로 여행하여 見聞을 넓힌다. 자동차를 몰고 싱가폴까지 강행군 하는 학생들도 있다. 나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독일 친구와 서남부 森林지



固定교육과정없고 副專攻 義務化
세미나위해 敎授추천書籍 읽어야

放學때는 旅行통해 見聞을 넓혀
세미나圖書館에 專攻圖書 완비돼
공식祝祭없고 宗敎的行事땐 休講

대 슈바르쯔 발트(Schwarzwald)를 10일간 도보여행한 것과, 부활절 기간에 친구들과 중고품 자동차를 구하여 이태리 견역을 구경한 적이 있다. 유학생 중 다수는 방학에 아르바이트(arbeit)를 하여 생활비를 번다. 대학 직업 안내소에서의 소개로 호텔 객실 청소, 출판소 雜役, 혹은 중노동을 마다 않는다. 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7마르크 정도. 그러나 학기중 미진한 부분을 보충, 테포-트를 쓰거나, 다음 학기 세미나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생활비를 送金해 받지 않는 유학생들은 각종 장학금과 혹은 부인의 內助를 받아가며 목표달성을 향하여 迫車를 가하고 있다.

개선문에서 루트비히街는 끊어지고, 거기서 메오폴드街가 시작된다. 대학 식당(Mensa), 큰 슈퍼마켓, 술집, 음식점이 집결해 있고 거리 양쪽에 하늘을 찌를듯 솟은 버드나무 가로수는 우리의 시골길을 연상케 하는데 여기 저긴 그들의 생활이어 신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카니발등의 종교적 행사 때는 대학 강의가 없다. 문헌의 전통적인 「十月 축제」 기간동안 길엔 온통 비틀거리거나, 누가 어깨를 흔들기만 해도 금방 취해 비틀거릴 사람 뿐이다. 대학생들도 남녀 할 것없이 무섭게들 마시고 보이고, 넥타이와 정장을 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 보였다.

이상으로 거기에서 3년 체류 기간중에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보았다. 독일 학생들이 우리들 보다 월등히 나은 여건속에 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전통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세계문화와 인류 共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겠다.

「힘써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校訓에 魅力을 느끼고 「인생의 8할은 교과서 밖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린 대학생활 역시 誠實하게 보낸 것이 아닌가 보다. 이는 학업을 돌봐주신 부모님께는 不孝이고, 恩師, 親知의 기대에 어긋난 결과가 되어 한스럽기 그지없다.

新入生이 되어 해방감을 만끽하다 落葉을 보았고, 기후타령, 기분타령으로 2학년을 마쳤고, 강의 없는 시간이면 잔디밭에 누워 하늘만 쳐다 보다 한해가 후딱 지나 졸업반이 되고서 論文作成 관계로 說問紙 들고 東奔西走하면서 도서관 서점, 연구실을 뻔질나게 쏘다니다가 指導敎授님의 총평을 듣고 가슴 탁트이는 순간을 내쉬고 있는데 후배들이 졸업환송회를 주선한다. 그야말로 自他가 公認하는 졸업생인 것이다.

대학생이 되어 「내가 만일 대학생이 된다면」이라는 題下의 몇분의 글도 읽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께 여쭈어 본 적이 있다. 좋은 말씀도많이 하시고 우스게 말씀도 하셨지만 作心하여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진강에 유의하겠다∨, ∧독서를 많이 하겠다∨, ∧학업에 충실하겠다∨, ∧취미생활을 가지겠다∨, ∧교제에 소홀치 않겠다∨이다. 그런데 나의 지난 대학생활은 어떠한가. 위장과 간장이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주위에서 훈히 들먹이는 책이름은 듣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우가 옛부터 전해지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에도 아랑곳 없이 10년이나 배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남다른 취미생활을 한 것도 아니다. 구태여 밝힌다면 한번에 3·4分씩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外食이라고나 할까. 하기야 하숙생의 취미로는 신제적이고도 고상한 것이지…그중에서도 交際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맹물 인사가 있어야 情이 오가는 법이다. 이따금 상대방의 「누구시더라」는 질문을 받아 괜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하지만 그럴수록 좋은 것이 인사이다.

자신이 한 말 (言)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신뢰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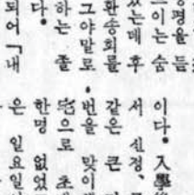
시간을 원만하게 활용하면 독서도 많이 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에 유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일수 있을 것이다.

인사와 행동은 나만의 일이라 크게 빗나간 일이 없지만 시간전약은 그렇지가 못하여 讀書, 學業, 趣味生活, 健康留意, 交際 어느것 하나 제대로 못했다면 語弊가 있을까. 나의 실수로 일어나는 時間浪費는 어쩔 수 없지만 他人에 의해 시간낭비가 생기면 얼마나 짜증스러운가.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은 주로 손윗사람에 의해 생긴다. 그렇다고 本人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편을 만들었다. 남에게 시간이 수반되는 부탁(일, 약속)을 할 때는 편리한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相對者가 허락하는 시간으로 하고 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萬事 亨通이다. 아랫사람이 찾아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고 물었을 때 나의 입으로 虛送歲月이란 말을 하지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 後輩아와 卒業을 앞두고 한 마디 남기라면 얼굴을 붉히면서라도 ∧학업에 충실하라∨는 말은 하고야 말리라. 「학생때가 가장 좋을 때다」하시던 선배님의 말씀을 후배들께 전한다해도 그들은 그 뜻을 알리가 없을것이다. 내가 그러했듯이…

∧觀光·四∨

卒業有感



咸璟叅

首席卒業 송경희嬢

졸업이라는 영광을 안기 까지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이란 밤을 쌓아올 성숙하다기 보다는 장난기가 섞인 조그만 눈의 宋양은, 수석 졸업의 소감을 기쁘고도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진 듯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의 과외활동이었다고 다」고 하였다.

약사나 의사가 되는 것이 원래의 꿈이었지만, 영어교육과도 자신의 적성에 맞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며, 그중에서 어려웠던 점은 여성의 입장에서 내적인 면에 충실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을 확립하여, 현 중되지 않는 의미있고 후회없는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보니 자신이 걸 밟어버린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영자신문사와 제주도문제연구회에 활동했던 宋양은 서클활동도 대학생활에서 중요하다며 친선도모의 서클보다는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서클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학 4년 중에서 지금도 3·4학년 때 과(科) 여학생 6명과 학교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전국을 며칠간 여행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며 회상에 잠겼다.

대학교육이란 주입식이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많은 책을 참조하여 폭넓게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말을 맺었다.

首席入學 오정보君

「首席은 意外의 榮光…」
뭐든지 하면된다는 自信感얻어

전기대학으로 바뀌어 치뤄진 첫 입시에서 영예의 수석을 차지한 貶正植(19·인문계열 사범계)군을 찾아 中文에 도착한 것은 오후가 좀 지나서였다.

「전 말도 잘 못하고…」이게 貶君의 겸손한 첫마디였다.

어머니는 貶君이 태어난 지 5개월만에 他界하였고, 아버지는 安妻에 계셔서 줄곧 고모와 함께 지내며 공부해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선한 웃음과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수석입학

살풀이

문 무 병

아주머니
무척 피곤해 뵈는군요.
霧氣에 눈이 먼 엇그제 일 모다 지워 버리고 주무셔요.
죽음이거나 病이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三界 두루 한 세상인데 그만 누워 계셔요.

아주머니,
밤 배로 오셨죠?
저런, 山을 보아 두셨어요?
來日이면 칫차가 있어요.
빌린 마음따라 그믐달에 끌려 가노라면 山에는 돌비석이 있을 거예요.
어둠 속을 하얗게 밝히는 빛,
地下世界는 아름다워요.
개념은 멍들어 죽어 갑니다.

아주머니,
저 水平線에서 오셨어요?
밤 배를 타고 오셨군요.

주른 원귀들을 데리고 불살이 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는 暴風이 불었답니다. 춥지요? 견음이 더디군요.

아주머니,
저금 갈 수가 없어요
山은 눈아 쌓여 고봉이 두겹됐어요.
누워 계셔요.
언제나 칫차는 山에 오르지만 ㅡ
돌아 오지 않아요.
떠나는 일은 미리 豫約이 되어 있어요.

아주머니
여행이에요?
누굴 찾고 계시죠?
빌린 마음과, 빌려 준 마음,
이돌테면 追憶의 霧氣말까……
氷山이 풀리면 철쭉이 피요,
빛이 모이면 따수어 져요,
가지마셔요
情만 도타우면 가슴에 새긴 돌비석결에 누워요
말끔을 지우며 비롯한 사랑이었다면, 막차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國敎·四)

영혼의 弔詞

梁 容 碩

늙고
젊은
나무 우거진 곳.

여울물 소리 갈증을 없애 주는
原始林.

몇 천년 前부터
내 영혼 파편들이 침식해 들어 앉은
巨木이 지배하는 原始林.

큰 비가 내리고 여울물 불어
갈증이 가시는 날
소리쳐 높아진 큰 바위 뿌랑 아래
巨木의 殘骸를 보리.

눈감고
내리는 내 영혼의 파편들을 보리.

눈감고 한 그루 나무가 되는날
나무껍질 두꺼운 철판으로 덮여
後世 영혼의 안식처 없는 나무엘
내 영혼 없으니.

다시 큰 비 내리고 갈증이 가시는 날
어딘지 모를 곳에도
내 영혼을 볼 수 없으리.
내 영혼을 찾아 볼 수 없으리.

(行政·四)

아픔으로 크는 삶

吳 太 益

우리는 젊다. 世相이 어둡다고들 한다. 자기가 當選만 되면 금방 福祉 社會가 될 것같이 외쳐대던 어느 選良이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한다. 老練하게 真理를 熱講하던 敎授도 學点 핑계로 女大生을 籠絡했다고 外信이 전한다. 정든 學校가 다 뭐냐, 校服을 갈갈이 찢어던지고 말리는 敎師에게 쌍욕을 해댔다고 한다. 그래서 弟子는 스승이 없다고 야단이고, 스승은 弟子가 없다고 야단이라고 한다. 大路에서 預漢들에게 끌려가던 女人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行人들은 모두 外面했다고 한다. 정든 學友가 다 뭐냐, 卒業 앵범이 다 뭐냐, 밤에서 濟州바람에 펄럭이고 있더라. 某 TV의 아나운서는 뉴스를 報道하면서 「소매치기는 죽지 않는다. 다만 돈을 훔치고 사라져 갈 뿐이다」라고 한심한 코멘트를 하여서 戰雄 백아더를 無色케 하더라.

이런 개판 世上에 무어 할 얘기가 있느냐고 親舊는 막소주잔에서 하품을 했다.

우리는 꿈을 잃은 時代, 돈 萬能인 時代, 倫理 不在의 時代라고들 얘기하면서 걱걱 더 꿈을 잃어가고, 돈에 주눅이 들고, 非倫理的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얀 치아에 니코틴의 진이 쌓여가듯이 不滿들이 쌓여가고, 그래서 더스른가 뭔가 하는 충에 熱狂하고 거리의 포장마차집에서 쥐포를 안주로 장소주를 마셔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精神 姿勢를 同伴하지 못할 때 젊음의 價値는 구정물과 同族이다.

人間은 元來가 약한 動物이었다. 神의 失手였다. 에피메테우스(뒷걱정을 意味한다)는 무엇이거나 衝動的으로 해치우고선 後에 가서 後悔한다고 하는 산만한 두뇌의 所有者였는데,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人間을 만들어 내기 前에 이미 다른 動物들에게 뛰어난 能力은 거의 주어 버렸던 것이다. 勇氣, 힘, 민첩함 영리함 등 그 외에 날개, 털가죽같은 것을 주었다. 이래 가지고선 人間은 動物들에게 對抗할 만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形便이 된다. 여느 때와 같이 에피메테우스는 이에 당황하고, 후회막급하여 兄인 프로메테우스(深慮라는 뜻)에게 도움을 청했다. 프로메테우스는 人間을 萬物의 영장으로 만드는 方法을 궁리 끝에 하늘에서 빛나는 太陽 있는 데까지 가서 불을 훔쳐다가 人間에게 줬다. 그것은 곧 創造할 수 있는 能力, 思考였다.

人間이 動物과 根本的으로 다름은 아파할 수 있는 能力, 곧 思考라 할 수 있다. 思考는 上向性의 意志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動物들은 네 발, 모두 下向性인데 유독 人間만은 神들 처럼 두 발로 서서 걷는다. 하늘을 우러러, 上向性이다.

不滿들이 쌓여갈 때 그 打開策으로 더스코 춤도 좋고 깡소주도 좋다. 人間은 그런그런 不滿이 쌓이지 않을 만큼 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나, 親旧가 늘 말했듯이 問題 意識을 갖지 못하는 데 問題가 있다. 그것 自体가 젊음인 양 自身의 혈물을 合理化시키고 싶은 衝動과 싸워 이겨야 한다. 괴로워해야 한다.

젊음에게 무엇보다도 于先하는 主題는 사랑이다. 삶에 대한 사랑, 信念에 대한 사랑, 異性 間의 사랑, 父母兄弟 間의 사랑…이런 것이 없고는 삶은 無爲이다.

젊음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아픔에 誠實해야 한다. 결단코 誠實해야 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 빛나듯이 不滿스런 要素가 쌓여가는 世相일수록 우리의 젊음이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그런 아픔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그 아픔을 포기할 것인가.

「세차게 흐르는 물이 돌까지를 뜨게 하는 것은 그 氣勢가 병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수리가 疾風과 같이 짐승을 급습하여 그 머를 부수고 날개를 꺾는 것은 호흡조절을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孫子兵法은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괴로울 때일수록 생텍쥐페리의 「어린 王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같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行政·二)

점음에게 우선하는 主題는 사랑

수필

強忍함을 배우리

邊 聖 久

하루.

하늘의 북쪽에서 구름이 까아맣게 몰려 몰들어 오더니 온 하늘을 미소짓는 악마로 바꿔놓았다. 그아래 冬將軍의 到來를 알리는 듯한 매서운 입김이 가느란, 나뭇가지에 맴돌며 스친다.

겨울이란 季節感을 느끼기에 너무하리만치 북서풍은 몰아치는데도 동료 잎사귀들을 거의 다 보내고 다시 계절에 따라 오기를 기다리는 연하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強忍하기만 하다.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음주자의 목구멍에 이 매서운 입김을 몰아 넣어 이빨새에 찌르는 듯한 苦痛을 느끼게 할만도하다.

어제는 중천에 떠 온갖 만물을 포옹하고 파랗게 하늘을 수놓은 태양이 노래했고 세상의 눈총과 포옹속에 童心을 펼쳐 보려는 듯 파득거려 목을 추기고 날개짓에 힘을 주었다. 새롭만 아니라 길가의 개나리까지 내가 질소나 노란 엄색을 시작했었다.

그런데 오늘 북서풍이 온세상을 주름잡았다.

모두 음추렸다.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그 힘겨운지 어깨에 힘을 주었고 두터운 옷을 걸쳤다.

그래서 날들은 한 여름에 태양이 작렬하고 녹음의 무리들이 춤추는 때를 좋아하나 보다. 허나 나는 그렇지도 않다. 차가운 입김이 와닿아 피부에 자극을 주고, 그래서 느끼는 清涼感을 좋아한다. 그이유는 한가지 청량감이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힘, 즉 強忍함을 주기 때문이다.

때로 이런 때서움이 기를 펼때면 가슴은 통쾌하다란 나뭇가지에서 強忍함과 꺾이지 않는 意忍를 배운다.

이런 意忍는 생명을 약동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젊다는 思考의 원천이 되어 준다 조그만 나의 몸뚱아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熱氣가 하늘을 찌를 정도 춥다는 것이다. 허나 지금은 북서풍이 악마처럼 춤을 추는 겨울, 이런 차거운 때에 때면 거의 다 귀찮고 축축하고 싫은 것처럼 느낀다. 허나 지금은 아니다.

모든 생물은 겨울이란 차거움의 감정을 주는때도 나뭇가지의 강인성을 잊고 겨울을 겨울답지 않게 허송하려 한다. 모든 일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듯 季節도 변하게 마련이다. 겨울이란 겨울이란 추위가 몰아대는 여름에는 겨울이란 추위를 생각하고 겨울에는 다시 여름을…

이렇게 변하는 시간속에 나는 무엇에 뜻 있는 힘을 주었는가 하는 생각의 일초를 마음속에 모아보며 나란 위치를 밝혀보았다.

여전히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흔들렸다. 매서운 冬將軍의 부하들에게…

그러나 떨지는 않았다. 그래서 強忍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 추위가 끝나면 인내로써 다진 봉우리가 피어 나겠지, 그래서 녹음을 만들고 다시 유유히 사라져가고. —

인내로써 삶의 바탕을 이뤄보고 싶다. 나뭇가지의 強忍性을 언제나 느끼며…

(國敎·一)

절부암 고목

高 峯 珍

묵 묵인 세월 속에
얼마나 그리움이 도사렸기에
시커먼 등걸을 하고
비ㅣ인 허공을 흔들어
조용한 비명을 지르는 건가.

수많은 太古의 伝說을 살라 먹고
新綠의 푸르름이 스치고 간
余韻이 남아
무거운 침묵을 지켜 서 있는
古木등걸.

이끼 낀 바위 위로
몇 마디 한(恨)을 뜨해낼인지
밤이면 파란 별 빛을 삼키고
안타까이 기다리는 세월이 있어도.

연록색 새 잎이 돋아
하늘로 피어나지 못하는 서러움이기에.

멍든 가슴 어루만지며
오늘도 검은 허리 등걸에
바닷 내음이 피어 내린다.

(數敎·二)

社告

보다 알찬 新聞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濟大人의 原稿를 모집 합니다.

다 음

◇대상 : 詩·小說·隨筆·콩트 論文·入學所感·活動記등.
◇길이 : 制限없음.
◇제출방법 : 수시로 本社編輯室에 내면 됨.
◇기타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稿料를 줌.

많은 投稿와 協助를 바랍니다.

1979년 2월 일

濟大新報社

토끼 인형

노 예 석

헤아릴 수 없이 날려보낸
나의 파랑새.

일찌기 울음도 잃어버린
어린 벗들 하며
가고픈 솔섬에 도달할 수 없는
맥잃은 나의 돛단배여.

사랑이란 말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웃음도 알지 못한 채
神들려 미쳐버린 조그만 추억들.

온갖 人形의 유희속에서도
흰 이를 드러낼 수 없듯 숨쉬는
토끼 인형만을 안고 싶은
가난한 내마음.

수없이 걸어간
분홍빛 인형들.

(畜産·一)

卒業을 祝賀합니다.

보 말

각종 남녀 보세의류

장 소 : 제일극장동쪽
주인 : 미교 3회졸업생
백 광 익
연락처 : 2—4632

月刊 北韓

「北韓」을 읽고 北韓을 알자

※구 독 신 청

제주시건입동1074—4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濟州事務所
☎2—0587

1979년

원호장학생선발공고

1. 지원대상자
대 학=대학공납금면제및 보조금지급 적용대상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원호대상자및 자녀 (신입생포함)
대학원=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원호대상자및 자녀 (신입생포함)
2. 장학금1인당 지급액
대 학=①인문계…150,000원
②자연계…200,000원
대학원=500,000원
3. 장학생 지원기준
대 학=①신입생…대학예비고사성적이 230점 이상이거나 입학석차 15/100 이상인자
②재학생…전학기 평균성적이 85점이상인자
4. 구비서류
①장학생지원서 (추천서포함) (원호관서소정양식「별첨서식」)
②전학기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③예비고사성적표 (사본) 및 입학고사성적 (서화표시된것) …신입생에한함
④입학성적증명서 (만점과 득점이 명시된것) …대학원생에 한함
5. 신청서류 제출처
대 학=호우회지도교수및 학장추천 취학지 원호지청
대학원=대학원장 추천취학지 원호지청 확인처본부
6. 지원서 접수일자
대학생=1979년2월10일~3월5일까지
대학원생=1979년2월10일~3월5일까지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호우회지도교수 (양순철) 에게 문의바람.
1979년2월 일

제주원호지청장
제주대학호우회지도교수